

# 타협없는 안전에서 한차원 높은 안전생활 실천

## -(주)금강고려화학 전주공장-

살갓을 스치는 쌀쌀한 날씨에 역사와 전통의 도시, 미래를 위해 역동하는 도시 전주를 찾았다.

취재길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월드컵의 열기와 함성이 들리는 듯 했다.

소나무 숲 너머로 (주)금강고려화학 전주공장(한상기 공장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느꼈던 그 열정과 기운이 느껴지는 듯 뜨겁다. 아마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우수사업장으로 거듭난 그 열기 때문인 듯하다.

도료, 석고보드, 유리, PVC사시, PVC바닥재 등 종합건축자재 생산업체로 최근 해외신용 평가기관인 S&P사와 무디스사로 부터 BBB와 Baa3 등급으로 평가받아 국제에서도 재무구조와 신용을 인정받고 있다.

(주)금강고려화학은 전국에 10여개의 공장, 연구소, 20개 지역의 영업점, 10여개의 해외지점, 5곳의 물류센터 등이 국내·외에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오늘 찾은 곳은 전주공장이다.

### 한차원 높은 안전생활 정착

2002년 임오년을 “한차원 높은 안전생활화 정착의 해”로 선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KCC의 안전을 Level Up 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로 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이것은, 전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안전활동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안전수칙은 곧 생명이며, 안전보건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한상기 공장장과 “안전생활 화즉, 안전수칙지키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이기 때문

에, 이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합니다.”라는 주영곤 안전팀장의 말에서 올해 KCC가 얼마나 변하게 될지 기대하게 한다.

###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

안전하고 명량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KCC 전주공장에서는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에게 포상



한 상 기 공장장

## 집중안전 포커

을 수여한다.올해가 5회째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생활이 정착되는데 큰 성과를 거둔 제도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포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을 위반하는 근로자는 KCC 전 주공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영곤 안전팀장의 말에서 잘하면 한없이 칭찬해 주지만 잘못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한 사람의 실수가 자신의 가족과 동료, 동료가족, 회사에 까지 치유될 수 없는 막대한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강할 때는 강하게 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주영곤 안전팀장의 의지이다.

그 외 안전팀장 주관하에 안전환경팀에서는 안전지도 단속기간을 선정하여, 이 기간동안 사업장 내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낸다. 이 때 발생한 위반사항은 철저히 조치토록



하며 매년 반응사·조색사 등 직무 시험에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이 사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다.

### 공든 탑을 무너트리는 화재 안전 추방

KCC는 다른 업종과 달리 화재 등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매년 소방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10회 불시 소방훈련을 통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 실전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소방본부, 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민관합동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함으로써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화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 최근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전열기 사용이 많아지는데 이때 안전환경팀에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 허가서 관리자

를 선정하고, 전열기 사용상 안전수칙을 인지하게 한다. “안전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사용허가제의 취지이다.

또한 화기 작업시에는 반드시 화기 작업 허가가 있어야 하며, 작업장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방차가 작업 현장에 항상 대기하는 등 완벽하리 만큼 철저하게 대책을 세운 후에 화기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한적이고 관리적인 제도에서 시대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영곤 안전팀장은 우수 사업장에 만족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차원 높은 안전활동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끝으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 또한 변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이곳 (주)금강고려화학 전주공장에 항상 무재해기가

계양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